

Daily Auto Check

2020.12.29(Tu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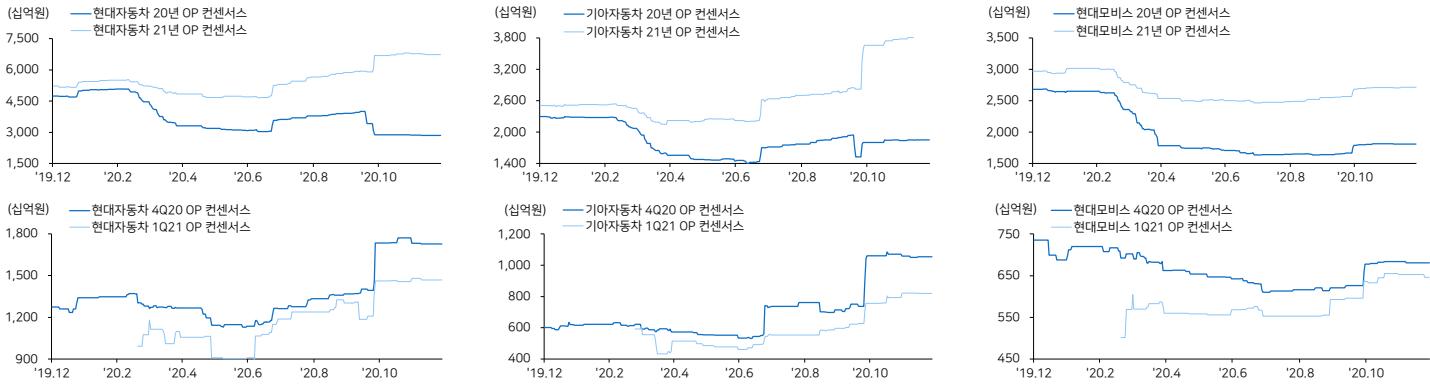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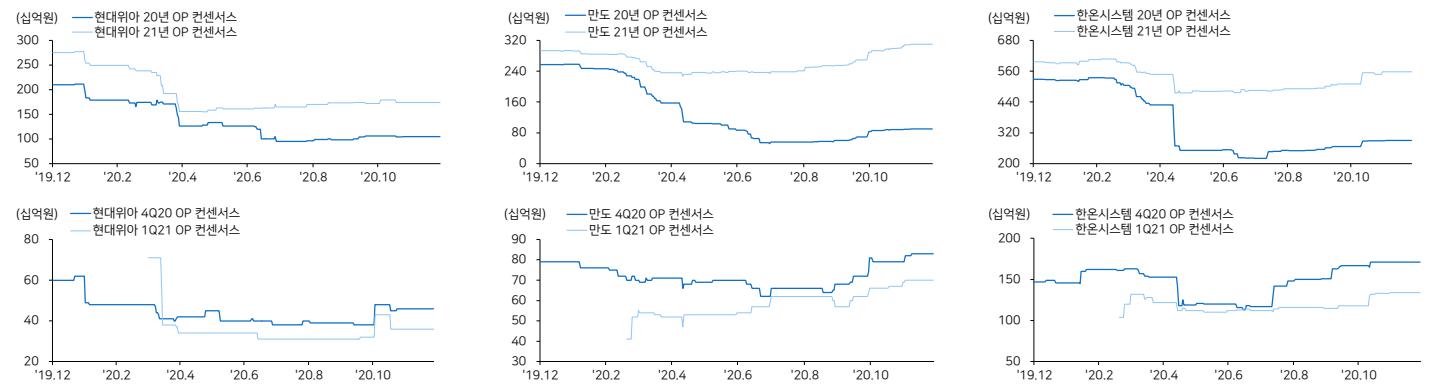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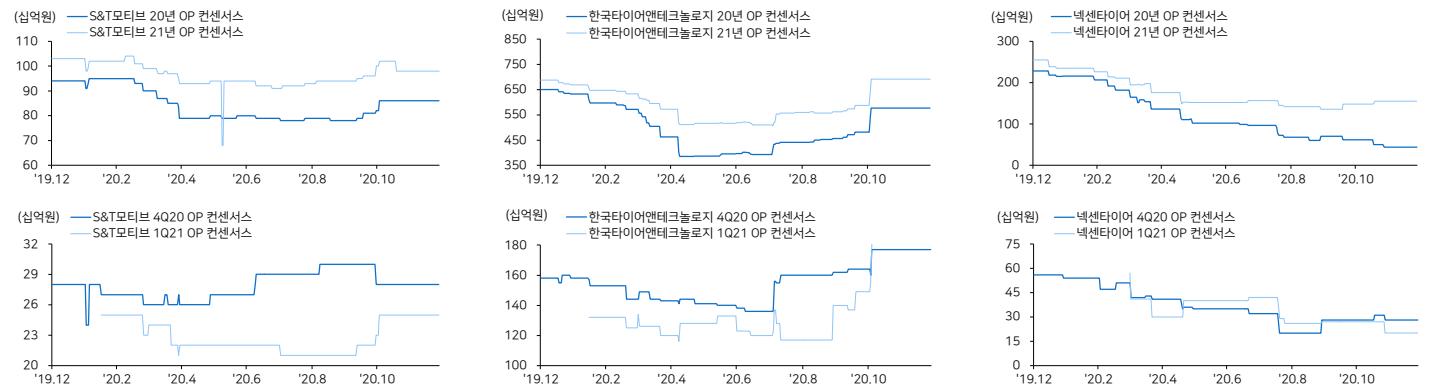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기아차, 英 '올해의 전기차 브랜드' 선정 (베럴드경제)

기아자동차가 영국에서 '올해의 전기차 브랜드'로 선정됐다. 내년 본격화하는 전동화 전략에도 청신호가 켜짐. 기아차는 테슬라와 폭스바겐, 푸조 등을 제치고 '2020 그린플릿 어워즈'에서 '올해의 전기차 제조업체'에 선정.

<https://bit.ly/2JqTxR>

기아차, 전기차 드라이브…로고·사명 다 뜯어고친다 (스카이데일리)

기아자동차가 내년 이후 산보이는 전기차 모델명을 새로운 브랜드 로고에 맞추기로 함. 중장기 계획인 '플랜S'에 맞춘 브랜드 전략으로 풀이. 기아차는 '기아자동차(KIA MOTORS)'라는 사명에서 자동차(MOTORS)를 빼고 '기아(KIA)'로 사명을 단순화할 계획.

<https://bit.ly/2L1pDlc>

리콜 받았는데…현대차 제네시스 GV80, 고속도로서 시동 꺼져 (한겨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V80에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지난 세 달간 최소 4건 발생. 앞서 관련 리콜(시정조치)이 이뤄졌는 데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것. 현대차는 추가 리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https://bit.ly/37SNYC5>

中, 2025년 자동차 판매 3000만대 (아시아경제)

중국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이 오는 2025년 3000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025년은 중국 정부가 신차 판매의 20%를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로 전환하겠다고 공포한 해.

<https://bit.ly/3hrjScw>

현대차 아이오닉5 · GV70 · 벤츠 EQA · BMW IX, 내년 차시장 출격 준비 완료 (매일경제TV)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모델들의 격전지가 될 전망. 현대자동차는 내년을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처음으로 적용한 아이오닉5를 출시. 기아자동차와 제네시스도 같은 플랫폼을 적용한 전기차를 각각 공개할 예정.

<https://bit.ly/3puN6T>

현대차, '제네시스·수소전기차' 앞세워 中·日·영·예·회복 버른다 (브릿지경제)

내년 현대자동차가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영예회복에 나선다.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론칭하고, 일본에서는 2009년 철수 이후 11년 만에 수소전기차를 앞세워 재도전.

<https://bit.ly/3hqLjn1>

자동차 결합 리콜 안해 중대사고시 5배 징벌적 손해 (이데일리)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사가 결합을 앞두면서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아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될. 국토교통부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28일 밝힘.

<https://bit.ly/3pl1ZCL>

테슬라, 2021년도 인도 진출 공식화…모델3부터 판매 (미디어펜)

니팅 가드카리 인도 도로교통부 장관은 2021년 초 테슬라가 인도에서 영업을 시작한다고 입장장을 밝힘. 내년 초 테슬라가 인도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차량 제조 시설 스배터리 제조 시설 등이 추가로 건설될 가능성이 있음.

<https://bit.ly/3nUStCw>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